

하늘. 사랑

AUGUST 2026
vol. 542

8

cover story

이국적인 부안의 일몰

2022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김동조



ISSN 3058-8758(Print)
ISSN 3058-8766(Online)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날씨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하늘 사랑

vol. 542

8

AUGUST 2026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11~14층)
전화 (02)2181-0356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6년 8월 5일
발행인 이미선
편집장 민현주
편집기획 박소현, 이호준, 김지은
디자인/인쇄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Contents



Special Theme

포커스 뉴스

02

기상청사람들_ 생생날씨정보통 편

04

비구름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위험기상 판단의 출발점, 레이더 분석



cover story

이국적인 부안의 일몰

2022년 기상기후사전전 <입선> 김동조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Weather Talk

- 06 8월, 매미 한 철
- 08 8월 제주 절물자연휴양림이 전하는 초록 힐링
- 10 무더운 날, 나는 왜 쉽게 예민해질까
- 12 숫자가 향하는 곳
- 14 방금 전까지 맑았는데 갑자기 폭우?
여름철 국지성 호우의 정체

Theme Story

- 16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상청의 심장, 재난에 대비하다
- 18 찾아가는 이동장터, 기상정보도 함께 갑니다
- 20 흩어진 기상융합정보시스템을 하나로,
서비스에 안정성을 더하다
- 22 어서 와, 바다수영은 처음이지?

Report

-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5 Platform
- 26 오늘, 당신의 날씨



기상청 사람들

매주 통보관들이 카메라 앞에 서는 이유! 〈생생날씨정보통〉을 아시나요?

기상청 디지털소통팀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기상청)을 운영하며 다양한 기상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날씨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생생날씨정보통〉을 소개합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에 날씨 앱 하나쯤은 있는 요즘입니다. 예전에는 외출 전에 “오늘 비가 올까?”, “기온은 몇 도일까?”를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갑자기 폭우를 쏟아내는 등 점점 더 번덕스러워지는 하늘 앞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 하며 날씨의 진짜 원인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생생날씨정보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의 정제된 설명을 넘어, 일상 속에서 생겨나는 날씨에 대한 질문들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자는 기획이었습니다. 이 여정에는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변인실의 우진규, 이원길, 이지혜 통보관입니다. ✨ 24시간 이어지는 언론 소통 업무 속에서도 촬영 일정만큼은 빠짐없이 사수하며, 매주 로테이션으로 카메라 앞에 기꺼이 서주고 계십니다.

촬영하면서 매번 느끼는 점이지만, 결국 좋은 콘텐츠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날씨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담아 전달할 때, 정보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통보관님들의 전문성과 옆집 이웃 같은 친근함,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겠다는 진심은 영상을 의미 있게 완성시키는 〈생생날씨정보통〉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협업 덕분에 영상들은 공식자 통합메일 홈 화면에 꾸준히 소개되며 기관 안팎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관심과 애정 또한 듬뿍 받고 있습니다. 😊



“우산 챙겨야 할까?” 국민의 일상속 질문에서 찾아낸 메가 히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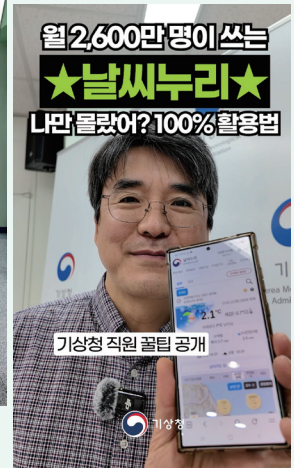
알고리즘의 세계는 냉정하지만, 〈생생날씨정보통〉은 꾸준히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기상청 SNS의 ‘효자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핫이슈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각 채널 특성에 맞게 확산시킨 결과, 영상 한 편당 유튜브 평균 약 1만 9천 회, 인스타그램 평균 약 2만 2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회 총 4만 1,100여 회가 넘는 조회수를 꾸준히 이어가며, 매주 4만 명 이상의 시청자와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높은 관심을 받은 대표 콘텐츠들을 소개합니다. 😊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콘텐츠는 누적 조회수 13만 회를 기록한 〈일본 장마 시작, 우리나라는 언제?〉 편입니다. 일본은 5월 초에 장마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장마가 시작될까?”라는 궁금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이를 콘텐츠로 기획했습니다. 위성 영상과 수치예보모델 자료를 쇼츠 형식에 맞게 담아내고,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한 고기압이 맞서는 당시의 기상 상황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장마철의 특징과 단·중기 예보 확인의 중요성을 짚은 통보관의 설명이 더해지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상과학의 한계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여름철 예보 활용법〉 편은 통보관이 직접 휴지를



떨어뜨리는 간단한 시연을 통해 예보가 가진 불확실성을 알기 쉽게 풀어낸 콘텐츠입니다. 휴지가 떨어지는 위치가 매번 조금씩 달라지듯 대기의 상태 역시 매번 달라지며, 그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예보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보의 특성부터 활용법,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을 바탕으로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아낸 알찬 콘텐츠입니다. <날씨누리 활용법> 편은 매월 2,600만 명이 사용하는 기상청 날씨누리를 더욱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으로, 점심시간 우산 챙기기 팁부터 실시간 레이더 영상 읽는 법까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유익한 날씨 정보들을 생생하게 소개한 <생생날씨정보통>은 시청자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받으며 믿고 보는 기상청 SNS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갤럭시 vs 아이폰, 언론이 주목한 화제의 콘텐츠

<생생날씨정보통>의 아이템 선정 기준은 명확합니다. 한 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가장 주목받은 기상 이슈 가운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동시에 향하는 주제를 찾아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갤럭시폰 vs 아이폰, 왜 날씨가 다를까?> 편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왜 날씨 앱마다 기온이 다르게 표시되는지,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했던 일상의 질문에 대해 기상학적 관점에서 쉽게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원리를 친근하게 풀어낸 덕분에 다수의 언론 매체에 인용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장마 용어 재정립', '지구대기감시보고서 발간', '세계기상기구(WMO) 100년 관측소 선정' 등 기상청의 주요 소식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되자마자 처음으로 발표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열대야주의보> 편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제작해, 특보 신설 배경과 국민 행동 수칙을 빠르게 안내하며 정책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독특한 역할을 했습니다. 😊



기상청 SNS 채널 '생생날씨정보통' 많관부 ♥

매주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보석 같은 기상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보관님들의 전문 지식과 결합하여 한 편의 영상으로 완성하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일상에 안전을 더하고 날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영상에 참여하는 모두가 즐겁고 보람찬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생생날씨정보통>은 앞으로도 날씨 속 다양한 정보와 기상청의 노력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내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기상과학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이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기상청 사람들'을 포함한 기상청의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QR코드로 접속해 주세요! →



비구름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위험기상 판단의 출발점, 레이더 분석

이상진 기상레이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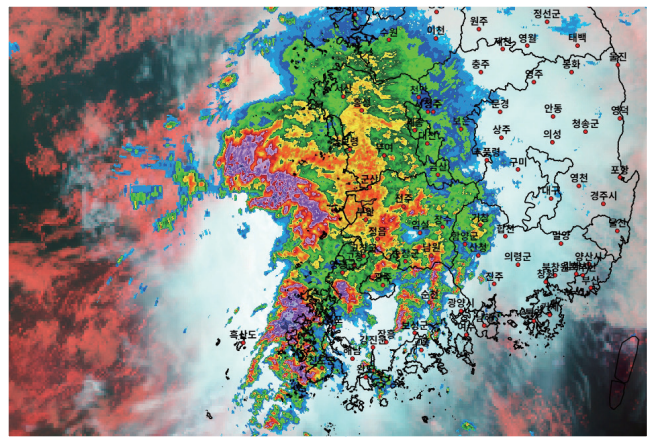
하늘에 비구름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 보이지 않는 대기의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첨단 기상레이더 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험기상의 신호를 찾아내고, 신속한 방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의 치열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긴급한 호우 상황 속 비구름의 강도를 파악하다

여름철 정체전선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상황 속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하고 거대한 비구름이 밀려들면, 기상레이더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며 강수강도를 추적합니다. 기상레이더는 한반도 상공에서 신속하게 비구름 정보를 예보 현장에 제공하며, 예보관들이 실황을 빠르게 판단하도록 든든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8월 3일 17시 극한호우를 발생시킨 중규모대류계

비구름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하늘을 판단한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기상예보의 이면에는 한반도 전역의 하늘을 초 단위로 감시하는 ‘기상레이더’가 있습니다. 기상레이더는 대기 중으로 강력한 전파를 발사한 뒤, 빗방울이나 눈송이 등 강수 입자에 부딪혀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첨단 원격탐사 장비입니다. 단순히 비구름의 위치와 크기를 평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 대기 상공의 풍향과 풍속, 강수 입자의 종류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3차원의 눈’ 역할을 수행합니다. 레이더분석과에서는 3차원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거대한 비구름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대기가 보내는 미세한 위험 신호를 24시간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강수강도로 하늘의 실황을 실시간 진단한다

위험기상 대응의 첫걸음은 ‘지금 어디에, 얼마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가’를 자세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레이더 분석 업무에서는 QPE(정량적 강수량 추정) 기술이 핵심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레이더 전파가 산악 지형 등에 가리거나 고도에 따라 강수가 왜곡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레이더 고도각 관측 자료를 최적의 상태로 합성하는

HSR(다중고도각 강수추정 기술)을 적용합니다. HSR을 통해 예보관들에게 실제 지상 실황과 가장 유사한 최적의 강수강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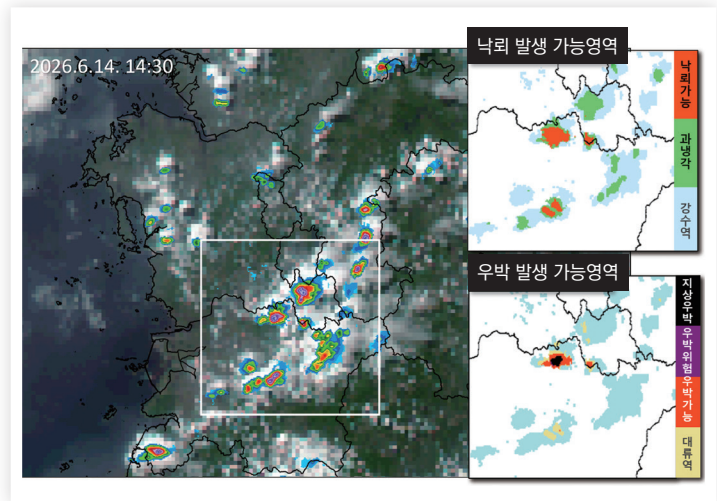
레이더로 다양한 활용분석

기술까지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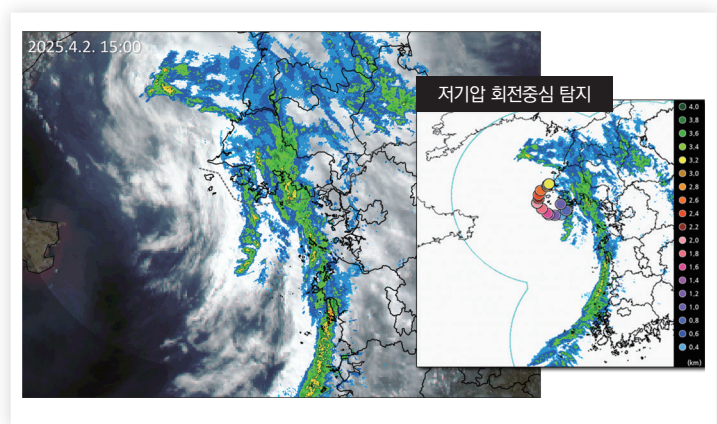
레이더 분석의 진정한 가치는 위험기상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소나기구름이 급격히 발달할 때, 레이더 분석 시스템은 비구름 내부의 거친 소용돌이와 에너지를 포착합니다. 실제로 비구름의 발달 경향을 신속히 판단하여 ‘낙뢰 발생 가능영역’과 ‘우박 발생 가능영역’을 산출함으로써, 지상에 첫 낙뢰나 우박이 떨어지기 수십 분 전에도 위험 신호를 미리 탐지해 예보 현장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하게 발달한 대류셀을 추적하거나 저기압의 회전중심을 추적하는 등 비구름을 이루는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예보관들의 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보관의 나침반이 되어 방재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한여름철, 강하게 발달하는 저기압이 한반도를 향해 돌진해 올 때 레이더분석과는 예보 현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레이더 강수 정보와 바람장, 그리고 대기의 연직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QVP(준연직바람 분포)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집중호우가 쏟아질 핵심 지역을 날카롭게 찾아내어 예보관에게 신속하게 공유합니다. 이러한 레이더 정보는 예보관들이 호우 특보를 선행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때로는 예측 모델과 다르게 비구름이 돌발적으로 발달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레이더 자료를 기반으로 실황을 재판단하여 각 지자체와 관련 방재 기관에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이 소통될 수 있도록 예보관을 지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소중히 지켜내기 위해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는 앞으로도 보다 치열하게 연구하고 예보관의 의사결정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낙뢰 및 우박 발생 가능영역



저기압 회전중심 탐지



8월, 매미 한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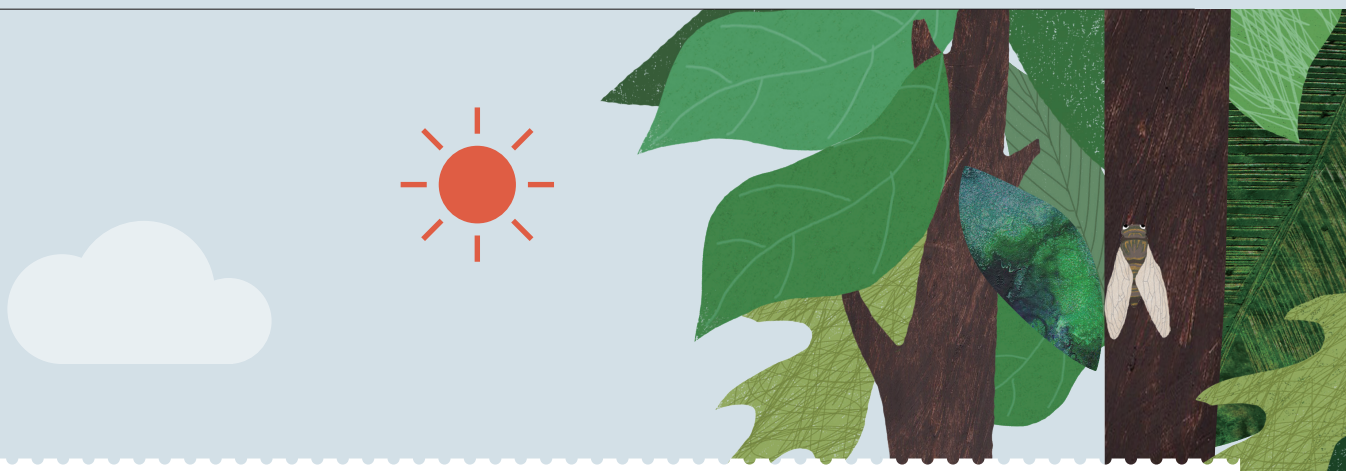
박재용 작가

며칠째 짹짹 내리쬐는 8월, 여름입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사무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도 그 뜨거움이 느껴질 정도죠. 이중창을 통해서는 사무실 안을 채우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뚫고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시인과는 달리 저는 차마 노래라 할 수 없습니다. 어지간히 시끄러워야죠. 그 시끄러움이 어떤 간절함으로 여겨지긴 합니다.

매미에게 8월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미의 일생을 돌아봅니다. 알에서 태어난 매미 애벌레는 바쁘게 땅 밑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 년을 애벌레 상태로 지냅니다. 뿌리에 침을 꽂아 수액을 빨아먹죠. 아주 평화로운 삶이긴 합니다. 천적도 특별히 없고 성가신 일도 없습니다. 드디어 성체가 되어 날개가 생기면 비로소 땅을 벗어나 날죠. 나뭇잎 사이에 숨어 저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짹을 부르는 소리죠. 그렇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 정도 짹을 찾아 번식의 임무를 마치면 그대로 죽습니다. 어떤 매미는 성충이 되면 아예 먹질 않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허무할 일입니다. 십수 년을 땅속에서 지내다 이제 막 날아올랐는데 남은 삶은 고작 서너 달이라니요. 이보다 더 허탈할 수도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조금 보는 눈을 달리하면 어떨까요? 매미의 입장이 한 번 되어보죠. 매미로선 십수 년의 땅속 생활이 오히려 자신 고유의 삶이었을 겁니다. 땅속이야말로 평생 살아온 고향이죠. 뿌리의 수액을 마시며 크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도 않고, 여름의 더위와 겨울을 추위를 피하며 즐긴 인생의 십수 년이라 생각할 순 없을까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되어서야 진화가 남긴 마지막 숙제를 다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머물던 곳을 벗어나 하늘로 나무로 날아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숙제, 짹짹기가 끝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생을 마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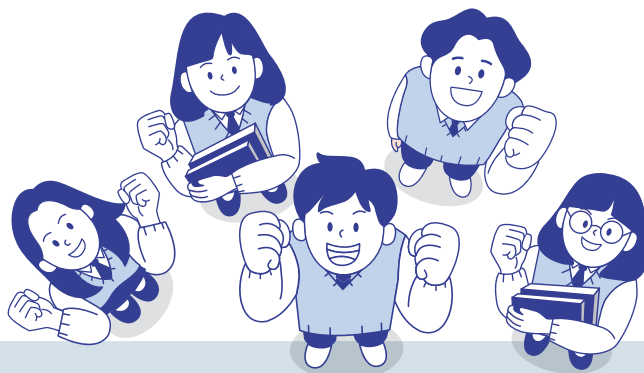
비슷한 예로 비단벌레가 있습니다. 비단벌레 애벌레는 나무줄기 안에서 삽니다. 줄기를 갉으며 수년 심하게는 수십 년을 삽니다. 영국에선 51년을 살고 있던 애벌레가 발견되기도 했죠. 성충이 되면 비단벌레란 이름에 어울리는 아주 화려한 날개를 자랑합니다. 초록색, 금색, 붉은색 금속성 광택이 나죠. 어찌나 화려한지 옛 신라에선 금관에 장식물로



쓰기도 했죠. 하지만 성충이 된 비단벌레는 불과 두세 달 살며 번식이 끝나면 죽습니다. 역시나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비단벌레 본래의 삶을 저는 나무줄기 속에서 보니다. 해충이라 불리지만 그건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그런 것일 뿐이지요.

어떤 연기자가 40대 후반이 되어 소위 천만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면서 지명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후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고, 주연을 꿰차기도 했죠. 어떤 이들은 연기력도 좋은데 너무 늦게 성공했다 했고, 다른 이들은 그만큼의 고생을 통해 단련한 결과가 뒤늦게 빛을 발한 거라고도 했죠. 저도 젊어서는 둘 중 하나의 의견에 동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늦게 철이 들려나 봐요. 저로선 둘 다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가 20대 때부터 해왔던 연극과 뮤지컬은 그럼 성공을 위한 밑받침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는 단지 훗날의 성공을 위해서 훈련이라 생각하고 연극을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기가 좀 없고 돈 좀 못 벌었으면 어떻습니까? 연극을 하면서 행복하고, 뮤지컬을 하면서 즐거웠으면, 그 일에 자신의 모두를 쏟아냈으면 그 자체로 훌륭하고 멋진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세월이 모여 40대 후반이 되어 인기도 얻고 지명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삶이 단지 준비로만 여겨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 여겼고, 대학은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이고, 취업해도 나중에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단련하는 기간이라 여깁니다.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기간이 그 나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애써 매미의 시끄러움을 견뎌니다.



폭염과 열대야사이,

8월 제주

절물자연휴양림이 전하는

초록 힐링 

박은하 여행작가

제주에는 8월이면 한 해 중 가장 뜨거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고, 밤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며, 종종 태풍 소식까지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늘조차 덥게 느껴지는 이 계절, 제주에는 유독 서늘한 공기를 품은 숲이 있습니다. 바로 절물자연휴양림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무더위 속에서도 걷기 좋은 제주 절물자연휴양림을 소개합니다.

절물, 이름에 담긴 이야기

"절물이 뭐야? 절에 있는 물인가?" 처음 절물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올렸던 생각인데, 알고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절물'은 '절집'과 '샘물'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는 약수암이라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절 옆에 맑은 샘물이 솟는 약수터가 있어 사람들이 '절 옆의 샘', 즉 절물이라 불렀어요. 절물자연휴양림은 1997년 문을 연 제주 최초의 휴양림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삼나무 조림이 반세기를 넘게 이어지며 지금의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산책로를 비롯해 약수터, 폭포, 연못, 잔디광장, 목공예체험장, 어린이 놀이시설,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하게 숲을 즐길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계단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습니다.



8월, 한낮의 더위를 피해 숲으로

무더위가 절정이던 8월의 어느 한낮, 제주 절물자연휴양림을 찾았습니다. 이날도 비가 내려 후텋지근한 날이었어요. 매표소를 지나 삼나무 숲길로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후끈한 열기는 사라지고, 촉촉한 나무 그늘 아래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삼나무 특유의 향이 코끝을 스치니 절로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되더라고요. 시원한 그늘을 따라 숲을 거니니 더위에 지친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미 소리와 새소리가 뒤섞인 숲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니 도시에서는 놓치고 살았던 소리들이 하나둘 들려옵니다. 숲길을 걷다 저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자세히 보니 노루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바라보니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조심스럽게 귀를 쫓긋 세운 채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일대는 야생 노루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노루를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절물자연휴양림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폭염과 태풍을 견뎌낸 숲

8월의 제주는 폭염과 열대야가 절정에 이르고,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며 국지적인 소나기가 쏟아지는 일도 흔합니다. 출발 전에는 반드시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고, 태풍 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제주 절물자연휴양림은 해발 500미터가 넘는 한라산 중턱에 자리해 도심보다 기온이 낮고, 뽕뽕한 삼나무 그늘이 강한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다만 숲 안은 습도가 높은 편이라 걷다 보면 땀이 쉽게 차오르니, 통풍이 잘되는 옷차림과 여벌의 물을 챙기고,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는 피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방문하는 것을 권합니다.

삼나무 숲이 만드는 서늘함

제주절물자연휴양림의 삼나무는 해발 550미터 한라산 중턱, 촘촘하게 무리 지어 자랍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뽕뽕한 수관은 강한 여름 햇살을 걸러내고, 그 아래 그늘은 바깥보다 체감온도를 눈에 띄게 낮춥니다. 습기를 머금은 나무껍질과 축축한 흙바닥은 열기를 흡수해 숲 전체를 하나의 자연 냉방 공간처럼 만듭니다. 여기에 삼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무더위와 함께 쌓인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함께 씻어내기에 좋습니다.



무더운 날, 나는 왜 쉽게 예민해질까

오현주 작가



‘작은 더위’ 소서를 지나 ‘큰 더위’ 대서까지 겪었으니, 이쯤이면 더위에도 조금은 무덤덤해질 법한데, 몸은 여전히 쉽게 축 늘어진다. 처마 밑에 엮드린 강아지처럼 기온이 빠지는 날도 있다. 복날의 복(伏)이 ‘엎드리다’는 뜻을 품고 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듯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 말을 해도 왠지 불편하게 들리고, 평소라면 웃어넘겼을 일에도 짜증이 먼저 올라온다. 세계 달린 방문 소리가 괜히 신경 쓰이고,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역은 오늘따라 유난히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

“왜 저렇게 말하지?”

이처럼 더위가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사실 낯설지 않다. 너무 더운 날에는 작은 불편도 더 크게 다가와서 말수는 줄고, 작은 기다림은 더 길게 느껴진다. 심리학에서도 높은 기온이 불쾌감과 적대적인 사고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다뤄져 왔다.

사회심리학자 크레이그 앤더슨은 높은 기온이 적대감과 공격적인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¹⁾ 몸이 지치고 불쾌감이 쌓이면, 주변 상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말도 그날따라 조금 더 거칠게 들리고, 대수롭지 않은 표정에도 괜히 의미를 붙이게 된다.

관계에서 갈등은 실제 사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 누군가 답장을 짧게 보냈다고 해보자. 사실은 바빴을 수도 있고, 별생각 없이 짧게 쓴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치고 더운 날에는 그 짧은 답장이 괜스레 예민하게 다가온다. “기분이 안 좋은가?”, “나한테 불만이 있나?” 하고 마음이 먼저 앞서간다. 상대가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닌데도, 이미 예민해진 마음이 그 행동을 부정적으로 읽어 버리는 것이다.

1) Anderson, C. A. (2001). Heat and viol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1), 33-38.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적대적 귀인 편향’이라고 부른다.²⁾ 쉽게 말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마음이 먼저 부정적인 의미를 붙이는 것이다. 무더운 날의 짜증과 불쾌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위에 지친 마음이 타인의 말과 행동을 더 날카롭게 읽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나의 기분이 판단의 재료가 된다는 연구도 있다. 심리학자 노버트 슈워츠와 제럴드 클로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기분을 상황 판단의 단서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³⁾ 기분이 좋을 때는 같은 일도 “그럴 수 있지”하고 넘기지만, 몸이 불편하고 짜증이 쌓인 날에는 “왜 하필 나한테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내가 상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

기상청은 올해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류 수렴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⁴⁾ 덥기만 한 8월은 아닐지도 모른다. 갑작스러운 비와 습한 공기가 뒤섞인 8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8월에는 희망도 함께 있다. 마지막 더위라는 말복과 함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함께하는 달이다.

옛 속담에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말이 있다. 더위에 지친 몸에는 작은 무게도 크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몸이 지친 날에는 가벼운 말 한마디도 유난히 오래 남는 날이 있다. 이런 무거움을 지나기 위해서는 몸에도, 마음에도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다. 따뜻한 음식으로 기운을 보태고, 시원한 곳에서 몸을 쉬게 하는 것. 무더운 8월에는 그 정도의 여유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다.

2) Klein Tuerpe, S., Bogaerts, S., & Veling, W. (2019).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aggression in adults: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6, 66-81.

3) Schwarz, N., & Clore, G. L. (1983). Mood, misattribution, and judg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3), 513-523.

4) 기상청. (2026, 6월 23일). 3개월 전망: 2026년 7월-9월.





숫자가 향하는 곳

전새날 헤럴드 사회부 기자

평년은 익숙한 단어다. 기상 기사를 쓰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 하나라서다. 평년보다 1도 높고, 평년보다 0.5도 낮고, 평년보다 장마가 11일 늦다. 기상청에서 말하는 평년은 30년 동안의 기후를 평균 낸 값이다. 숫자는 분명하고 기준도 명확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말 앞에서 한 번씩 멈추게 된다.

생각해 보면 최근 계절은 좀처럼 평년대로 흐르지 않았다. 지난해 6월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다. 올해는 조금 달랐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덜 덥다”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발생한 6월 열대야는 올해 관측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유럽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펄펄 끓는 날씨에 에어컨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40도가 넘는 더위에 곳곳에서 사상 최고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기사를 쓰다 보면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적게 된다. 평년을 기준으로 계절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날씨를 설명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다. 물론 모든 변화를 기후위기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다. 대기는 늘 복잡하게 움직이고 날씨는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그럼에도 계절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평년은 그대로인데, 계절은 점점 평년답지 않아지고 있는 것만 같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다. 사회부에 오기 전 소비자경제부에서 일할 때다. 라면값이 100원 오른다는 기사를 처음 맡았을 때는 솔직히 의아했다. 겨우 100원이었다. 그게 정말 기사 한 꼭지를 쓸 만큼 중요한



일일까 싶었다.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생각이 달라졌다. 누군가에게는 100원이 점심 한 끼의 부담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매일 장을 볼 때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물가였다. 100원이라는 숫자가 닿는 삶은 결코 작지 않았다.

기상을 담당하게 된 뒤에도 비슷한 마음을 자주 느낀다. ‘평년보다 덥다.’ 기사로 쓰면 한 줄이면 끝나는 문장이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그 한 줄에서 멈추지 않는다.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위에 지칠까.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그늘을 찾아야 할까. 해마다 평균을 비껴가는 날씨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 변화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되묻게 된다.

지난해 경기 북부를 덮친 극한 호우도 떠오른다.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다는 예보는 누군가에게는 우산을 챙기고 장화를 신으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게 앞 배수로를 다시 살피 봐야 하는 일이 되고 산사태로 집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밤이 된다. 태풍 진로가 조금만 달라져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날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삶에 남기는 흔적은 결코 같지 않다.



숫자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나 사람을 향한다. 아마 예보를 만드는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들이 보는 화면 속에는 기온과 기압, 강수량이 숫자로 나타난다. 브리핑 직전까지도 예보문은 여러 번 다듬어진다. 주말도, 새벽도 예외는 없다. 예보가 바뀌면 수정된 정보를 알리는 문자가 울린다. 숫자가 향하는 곳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럴 테다.

날씨 기사는 대개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비가 그치면 호우 기사는 사라지고, 폭염이 물러가면 더위도 금세 잊힌다. 하지만 그날의 기온과 강수량이 스쳐 지나간 숫자로만 남는 것은 아니다. 그 숫자를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들의 하루는 오래 남는다. 평년은 여전히 익숙한 단어다. 다만 이제는 가장 쉽게 쓸 수 없는 단어가 됐다.



방금 전까지 맑았는데 갑자기 폭우? 여름철 국지성 호우의 정체

서 하은 제18기 국민정책기자단

여름철에 방금 전까지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경험, 다들 겪어본 적 있으시죠? 분명 외출할 때는 비가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기한 점은 이런 비가 모든 지역에 똑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세차게 쏟아지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국지성 호우’인데요. 국지성 호우가 무엇인지, 왜 여름철에 자주 나타나는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지성 호우란 무엇일까?

국지성 호우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뜻하는데요. 넓은 지역 전체에 고르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에도 어느 곳은 폭우가 쏟아지지만, 가까운 다른 지역은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거의 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름 소 나기는 발고랑을 두고 다툰다”라는 속담도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좁은 발고랑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비가 오는 곳과 오지 않는 곳이 나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차이는 비구름이 넓게 퍼져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발달한 비구름이 특정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에 가까이 있더라도 한쪽에서는 빗줄기가 강하게 쏟아지고, 다른 쪽에서는 흐리기만 하거나 약한 비만 내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국지성 호우는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체감상으로는 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공간적으로는 좁고 시간적으로는 급격하게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침수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왜 여름철에 자주 나타날까?

그렇다면 국지성 호우는 왜 여름철에 자주 나타날까요? 여름철에는 강한 햇볕으로 지표면이 쉽게 달궂습니다. 지표면이 가열되면 그 위의 공기도 함께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공기는 주변보다 가벼워져 위로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낮 동안의 지표 가열은 상층과의 기온 차를 크게 만들어 대기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층은 따뜻하고 습한데 상층은 차가운 기온 분포를 보일 때, 대기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강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기 쉬워요.

이렇게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위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구름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구름 내부에서는 물방울이나 얼음 입자가 성장하고, 이 과정이 강하게 이어지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표 부근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을 키우고, 그 안에서 물방울이나 얼음 입자가 점점 커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내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질수록 비를 만들 수 있는 입자들도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상승기류가 강할수록 공기가 위로 더 빠르게 이동하고, 구름도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덥고 습한 여름날, 특히 낮 동안 지표면이 충분히 가열된 오후나 저녁 무렵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성 강한 비가 나타나고는 한답니다.



위험할 수 있는 국지성 호우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도로가 침수되거나 하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고, 지하차도나 반지하, 지하 공간처럼 물이 모이기 쉬운 곳은 더 위험해질 수 있죠. 특히 운전 중이라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보행 중이라면 맨홀 주변이나 물이 고인 도로의 깊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많이 찾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현재 위치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더라도, 주변이나 상류 쪽에 강한 비가 내리면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나 호우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는 물가 주변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외출 전 하늘이 맑아 보여도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상청 날씨누리나 날씨알리미 앱의 레이더 영상, 호우특보와 함께라면 갑작스러운 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알리미 앱에서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레이더 영상은 비구름이 어느 지역에서 발달하고 이동하는지 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지성 호우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대비를 통해 소중한 일상을 지키시길 바라며, 모두 꼭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상청의 심장, 재난에 대비하다

민지현 관측기반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지난 2025년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배터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국가 재난 안전 예방의 핵심 인프라인 전산 자원 보호를 위한 배터리 화재 초기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화재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개정, 정밀 화재 안전진단 및 화재 안전 컨설팅, 소방청과의 화재 초기대응 합동훈련 등을 통해 소중한 인적·전산 자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기상청의 심장,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도입 역사는 199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상예보 및 수치모델의 발전에 따라 예보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1999년에 1호기 초기분이 도입되었고, 2000년도부터 20여 년간 약 5년 주기로 도입되며 기상청의 예보 업무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대규모 복합 시스템인 슈퍼컴퓨터는 24시간 무중단 가동되며 매일 33만 개의 기상·기후자료(163TB)를 생산하고, 이 자료들은 지진·해일·화산폭발·가뭄·한파·화확사고 등 17개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2,619개 기관에 전파됩니다.

슈퍼컴퓨터를 무중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냉동·전기·기계 설비 등 기반 시설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전

기 사용량은 1년 기준 아파트 15,700세대의 전력 사용량과 비슷합니다. 대용량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배전반 시설을 통해 외부에서 고압(22,900V)을 받아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전압(380V, 220V)으로 낮춰 여러 전기 시설로 안전하게 분배합니다.

센터 내에 있는 시설을 더 살펴보면, 냉동기는 냉수를 생산하고 슈퍼컴퓨터와 전산실의 내부 온도를 유지시키는 향온향습 설비로 들어가 장비의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환수되어 냉동기로 다시 들어가 최적 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냉각탑은 냉동기에서 만들어진 냉수가 슈퍼컴퓨터의 열을 흡수하여 냉각수로 가면, 외부 공기와 닿아 거대한 팬을 통해 그 열을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구축물입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비상 발전기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상시 전력이 멈추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며, 정전부터 비상 발전기 가동까지는 UPS(무정전전원장치)가 전력을 제공합니다. UPS는 정전이나 순간적인 전원 이상 발생 시 장비에 비상 전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슈퍼컴퓨터와 같은 중요 전산장비는 순간적인 전원 장애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UPS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민·관 합동 전문가(건축·소방·전기 기술사) 컨설팅 및 시스템 개선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충북소방본부·청주동부소방서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컨설팅을 시행해 주요 전산 시설, 기계·설비 시설에 대한 화재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당시 소방 당국이 건물 도면 등 각종 정보를 저장해 두는 소방 예방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도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선례가 있어, 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소방력 진입 안내도와 화재 진입 영상을 제작해 출입구에 비치하고, 연기 발생 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바닥을 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야광으로 된 피난 유도선을 바닥에 부착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역 소방기관과의 협업·연계를 통한 화재 안전 조사, 소방 안전관리 시책 적극 추진, 체계적 소방 훈련 지원, 배터리실 119 신고 기준 온도와 배터리 충전 속도 조정 등으로 배터리 운영 안정성을 크게 향상하였고, 화재위험에 대한 초기 대응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민·관 합동 컨설팅(사진 위), 초기 상황 대응 훈련(사진 아래)

자체 재난 대응·소방청 합동 화재 훈련 성과



소방청과의 합동 화재 훈련

훈련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재난 발생 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초 발견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대피지점과 집결지는 어디인지, 전산 자원 보호를 위해 어떤 절차와 임무가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 초기대응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배터리실 이상 징후 발생을 가정하여 상황 전파, 119 신고, 인명 대피, 출입 통제, 소방대 진입 안내, 주요 전산 시설 보호 절차 등을 실제 상황처럼 훈련했습니다. 단순히 지침을 문서로 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 맡은 역할을 몸으로 익히며 실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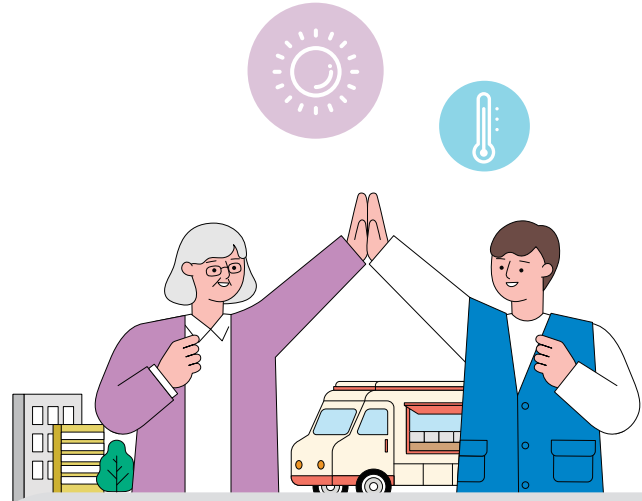
발생 시 현장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소방청의 초기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재난 대비에 진지하게 임하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슈퍼컴퓨터가 안정적으로 24시간 무중단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기상정보도 함께 갑니다

김민영 광주지방기상청

전남지역의 농촌 마을에는 여전히 스마트폰보다 마을 방송이나 이웃의 이야기에 더 익숙한 어르신들이 많다. 아무리 의미 있는 기상정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광주지방기상청은 지역의 이동장터 운영기관과 손을 맞잡고 어르신들에게 폭염 영향예보를 직접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기상정보가 닿지 않는 곳을 찾아서

매년 여름 찾아오는 불청객 '폭염'은 누구에게나 고달프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오지 마을의 어르신들에게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이나 TV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는 기상정보와 대처 요령들이 정작 피박별 아래 홀로 발을 일구시는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실시간으로 와닿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층은 스마트폰 활용이 어렵거나 기상청 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생명과 직결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러한 정보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오지마을 등 곳곳을 순회하는 '이동장터'에 주목했다. 이동장터는 상점도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시골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필품과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동장터와 함께 만든 새로운 전달체계

올여름을 앞두고 광주지방기상청은 전남지역 5개 시·군 이동장터 운영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동장터 운영자들과 소통망을 마련하는 한편, 폭염 영향예보와 행동 요령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단계별 포스터 형태의 자료를 제작했다. 특히 폭염 영향예보가 발표되면 이동장터 운영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에서 마을 방송과 안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했다. "한낮 농작업을 줄이세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세요"와 같이 실천 중심의 메시지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기상청이 생산한 정보를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거쳐 전달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들이 실제로 모이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동장터를 찾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안부를 건네는 이 직접 전달 서비스야말로 폭염 영향예보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영암농협 기찬장터 차량



영광 동락점빵 차량



장성 도란도란장터 차량



현장에서 확인한 기상서비스의 가치

이동장터 현장을 찾았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주민들의 생생한 반응이었다. 일부 어르신들은 ‘폭염 영향예보’라는 용어 자체를 생소해하셨지만, 무더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직접 와서 알려주니 이해가 잘 된다”, “날씨가 답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며 기상정보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이 아니라 ‘전달’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영향예보 홍보물뿐만 아니라 폭염 대응 수칙, 온열질환 예방 요령 등을 함께 안내하며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상정보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상정보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전달되어야만 한다.

광주지방기상청의 이동장터 협력 사업은 거창한 기술의 도입보다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했다. 기상청이 생산한 정보가 행정기관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전달 방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올여름에도 이동장터는 어김없이 농촌 마을을 찾아가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생필품과 함께 폭염 영향예보라는 든든한 안전망도 주민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상정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것, 그것이 광주지방기상청이 만들어 가고 있는 또 하나의 기상서비스다.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협력간담회



함평군 해보면 마을 방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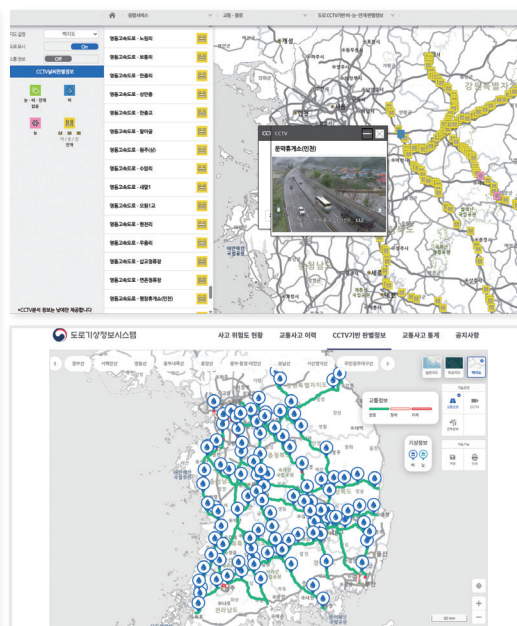
#

생활기상정보시스템은 국민 생활과 더욱 가까운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대기정체지수, 자외선지수, 꽃가루농도위험지수 3종의 자료를 생산하여 기상청 날씨누리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며, API도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통폐합을 통해 일관된 운영체계 안에서 관리될 예정이다.

도로위험기상정보시스템은 도로 CCTV 영상을 기반으로 눈, 비, 안개와 같은 날씨를 판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경부선, 중부선, 영동선, 중앙선 등 총 11개 노선의 정보가 날씨마루와 API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CCTV 자료를 기상정보와 융합하여 도로 위 위험기상정보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해당 정보는 향후 도로기상관측, 살얼음 및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으로 이관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도로 교통안전과 기상정보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기상정보시스템 표출 화면



도로위험기상정보시스템(CCTV 날씨판별) 표출 화면(위)
도로기상정보시스템 표출 화면(아래)

이번 통폐합은 업무별로 나뉘어 있던 기존 노후 전산자원은 폐기하고 남은 자원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개발 SW와 DB자료는 기상청의 KMA Cloud(오창)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Oracle을 활용하는 스토리지를 증설하여 자료 저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3가지 시스템의 WEB, WAS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자원의 중복을 줄이고, 장애 대응과 유지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폐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별 개발 언어, 데이터 구조, 운영체제 등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관과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2026년에 기상융합정보시스템 통폐합을 위한 이관·최적화 사업과 인프라 도입 사업이 추진되어 2026년 말에는 통폐합이 완료될 것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시스템을 줄이거나 합치는 작업이 아니라, 기상정보가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더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흩어져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모으는 이번 통폐합이 앞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상융합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서와,
바다수영은
처음이지?

오상명 국립기상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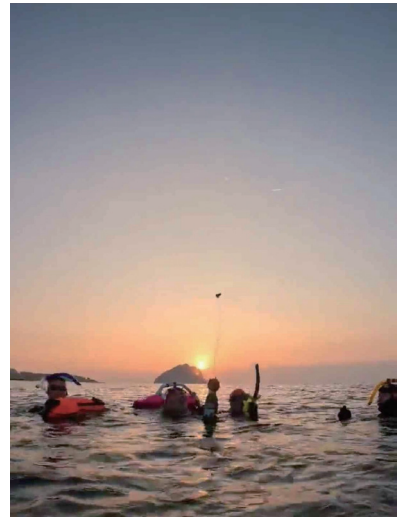
새해 첫 햇살을 바다 위에서, 해돋이 바다수영

새해 첫날, 많은 사람이 산 정상이나 오름에 올라 해돋이를 맞이한다. 그러나 바다수영을 즐기는 이들에게 1월 1일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다. 해가 뜨기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바다에 미리 몸을 담그고,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첫해를 바다 한가운데서 마주하는 것이다.

내가 매년 찾는 곳은 서귀포 자구리 해안이다. 동이 트기 한참 전, 웨트수트(Wetsuit)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장비를 점검한다. 각자 목에는 작은 손전등을 걸고 있는데, 이 불빛은 자신이 앞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뒤따라오는 동료에게 길을 안내하기 위한 신호등이다. 앞사람의 손전등 불빛과 오리발이 만들어 내는 물거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바다 한복판에 도착해 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모두 숨을 죽인다. 첫 햇살이 바다 위로 퍼지는 순간, 누군가 삼폐인을 터뜨린다. 평 하는 소리와 함께 새

해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소원을 빌어본다. 차가운 바닷물에 떠 있는 채로 떠오르는 해를 마주하는 경험은 산 위에서 보는 일출과는 분명 다른 감각이다. 수영을 마치고 물으로 올라와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비우면, 한 해를 건강하게 시작할 준비가 끝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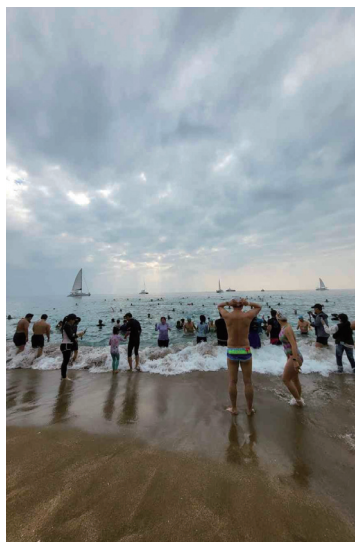
짜릿한 새해 신고식, 펭귄 바다수영대회

해돋이 수영의 여운이 가시기 전, 차로 이동해 중문 색달해변으로 향한다. 매년 1월 1일 이곳에서는 펭귄 바다수영대회가 열린다. 한겨울 바닷물에 다 같이 뛰어드는 모습이 마치 남극의 펭귄 무리 같다.



해변에는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가득하다. 두꺼운 웨트슈트를 갖춰 입은 사람도 있고, 수영복 한 벌만 걸친 사람도 있다. 사회자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모두가 함성을 지르며 바닷물 속으로 달려 들어간다. 1월의 바다는 얼음장처럼 차다. 발끝이 닿는 순간부터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고, 가슴까지 물에 잠기면 짧은 비명이 절로 나온다.

그러나 그 짜릿함은 묘하게 중독적인 데가 있다. 물 밖으로 나와 수건을 두르고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완주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새해를 가장 강렬하게 시작했다는 자부심이 든다. 처음 참가하는 사람도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이듬해 같은 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바다가 보내는 신호, 변화하는 제주 앞바다

바다수영을 오래 하다 보면 일반 해수욕객은 좀처럼 알아채기 어려운 변화가 눈에 들어온다. 그중 가장 뚜렷한 것이 바다 생물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몇 해 전부터 제주 바다에서 청게(꽃게과의 한 종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됐다. 원래 청게는 우리나라 서·남해 일부와 동남아시아의 따뜻한 바다에 주로 서식하던 종으로, 제주의 토착 어종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간 수영을 나가면 바위틈에서 청게가 손전등 불빛에 비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함께 수영하던 동료가 청게를 잡아 올리는 일도 드물지 않다.



청게뿐만이 아니다. 알록달록한 열대 어종도 부쩍 늘었다. 예전에는 오키나와나 동남아 다이빙 포인트에서나 마주칠 법한 물고기들이 이제는 제주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무리지어 헤엄친다. 반대로 차가운 물을 좋아하던 어종들은 점점 보기가 어려워졌다.

원인은 분명하다. 제주 바다의 수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관측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상승해 왔고, 그 상승 속도는 한반도 주변 해역 가운데서도 빠른 편에 속한다. 수온이

오르자 따뜻한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 제주까지 북상해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수영은 단순한 운동이나 취미를 넘어, 바다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읽는 활동이기도 하다. 새해 첫 햇살을 바다 위에서 맞이하고, 차가운 겨울 바다에 뛰어들어 활력을 얻으면서, 동시에 그 바다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살피게 된다. 그것이 바다를 즐기는 사람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닐까 싶다.

내년 1월 1일, 새로운 방식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싶다면 제주의 바다를 찾아오시길 권한다. 어서 오시라. 바다수영은 처음이지?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제2회 기상청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6월 29일)



기상청은 '제2회 기상청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재난성 호우 사전예측 가이드스 개발, AI 기술을 활용한 천리안위성의 디지털 지상관측 체계 개발, 슈퍼컴퓨터 및 수치예보모델의 효율적 운영 기술 개발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을 포상했다.

기상청-카카오 업무협약 체결 (7월 3일)



기상청은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주)카카오와 '위험기상 등 정보 확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등 자연재난이 일상이 된 오늘날, 위험기상과 지진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전략 토론회 (7월 3일)



기상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적인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 기반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산되어 있는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정환 기상청 차장,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방문 (7월 21일)



이정환 기상청 차장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위험기상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개선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한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제주시 용담동)를 방문했다.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우리나라 소나기와 동남아 스콜 비교 쇼츠



**요즘 날씨가 동남아 같다고요?
소나기와 스콜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름날씨 #소나기 #스콜 #팩트체크



높은 습도에 갑자기 쏟아졌다 금세 그치는 비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 같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나기와 동남아의 스콜은 발생 원리부터 비가 그친 뒤 날씨까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기에 숨어 있는 기상과학의 원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스콜과 소나기의 비교·분석부터 기후변화로 달라진 소나기의 특징, 소나기 예보와 소나기에 대비하는 예보 확인법까지 핵심만 콕 짚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날씨 이슈를 통보관이 직접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기상청 유튜브 ‘생생날씨정보통’ 쇼츠에서 확인해 보세요!



웹진
kma.go.kr/kma

<하늘사랑>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페이스북, X)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 보기

기상청 행정 누리집(홈페이지) > 알람·자료 > 기상간행물



소셜미디어
(SNS)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날씨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며 소통합니다. 특히, 날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상·기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로부터 생활 속 날씨 정보 활용법과 기상과학 풀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기상청 SNS 채널을 방문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구독 또는 팔로우, 콘텐츠 ‘좋아요’를 누르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유튜브
youtube.com/@기상청



블로그
blog.naver.com/kma_131



X(트위터)
x.com/kma_skylove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ma_skylove



페이스북
facebook.com/kmaskylove



이정민

은은한 향기의 소엽풍란은 보통 봄에 피나, 꽃 유지 기간이 길어 여름의 높은 기온에도 강함을 보여줍니다. 잎은 가늘고 길며, 꽃수는 많고 은은한 향기마저 풍겨 나와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답니다.



박향숙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석양에 물든 구름을 휴대폰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주황빛 구름이 하늘을 수직으로 가르며 솟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불꽃이나 봉황의 날개, 혹은 천사가 하늘로 오르는 듯한 형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연이 잠깐 만들어낸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향화

천사나팔꽃은 가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발이나 길가, 빈터에서 잘 자랍니다. 아래로 흔들리듯 매달려 있는 애처로운 나팔 모양의 통꽃이 초록색 꽃받침과 너무나 잘 어우러지며, 밤이 되면 향기도 진해져 콧속으로 스며든다네요.



오늘,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 우윤숙

주변 공원에 가면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는 평상이, 길가 곳곳에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책이나 운동을 하다가 쉬고 싶거나 대화라도 하고 싶으면, 바로 앉아서 커피나 먹거리를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긴 여름 낮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강호우

양주 감악산을 오르다 양지바른 곳에서 선명한 노란색의 꽃을 만났네요. 잠시 마음의 힐링이 되었습니다.



📷 김동석

붉게 타오르는 아름다운 노을을 무심히 바라보는 순간, 바쁘게 흘러온 오늘 하루에도 감사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낱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100자 이하)를 이메일(kmanews@korea.kr)로 **8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은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연락처·주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목적): 성함, 연락처, 주소(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즉시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냥드림

꼭 필요한 국민께

'그냥드림'은 생계 위기로 도움이 절실한 이웃분들을 위해 운영됩니다.

“

푸드마켓(뱅크)은 지역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기부로 운영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실천운동 -

”

위기 상황 자가점검과 상담을 마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이용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 거주지 푸드마켓 (뱅크) 내 '그냥드림 코너' 방문 수령
- ✓ 2번째 이용 시 기본 상담 진행 → 추가 지원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장 위치 확인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어려움으로 도움이 시급하나, 기존 복지제도로 즉시 보호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생계 위기로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양보해 주세요. 준비된 물품이 항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일부 물품이 부족할 수 있는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여름철 우기 및 태풍(폭풍) 전

산과 가까이에 있는 주택(건물) 배수시설 점검하기

• 위험요인 발견 시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세요.



집중호우 및 태풍(폭풍) 시

기상정보 및 대피장소 확인하기 산 주변에서 야외활동 하지 않기

•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확인방법
- 산사태 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난' 앱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스마트산림재난 (스마트폰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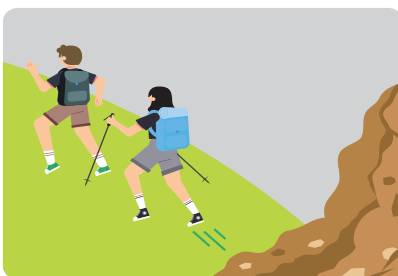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나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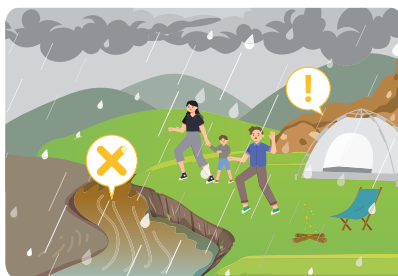
산에서는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기



야영(캠핑) 중에는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계곡에서 떨어진 높은 언덕으로 대피하기



주택(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

산과 멀리 있는 가장 높은 층 방으로 대피하기



운전 중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 대피 이동 중에는 신호등, 가로등, 고압전선 인근으로 접근을
자제하세요.



산사태국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하세요.



스마트산림재난
산림청

다운로드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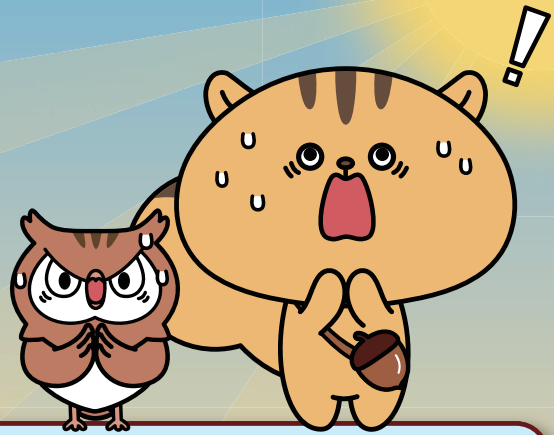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 이 종이는 지속가능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로 제작되었습니다.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



쉼터 검색